

# 고우타이(小謡) 「다카사고야(高砂や)」의 성립과 수용양상

김 현 욱\*

(e-mail : hwk33@kookmin.ac.kr)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고우타이(小謡) 「다카사고야(高砂や)」의 수용양상 |
| II. 슈겐노(祝言能) 「다카사고(高砂)」의 성립                                 | V. 맺음말                          |
| III. 노(能) 「다카사고(高砂)」의 우타이(謡)<br>(1)우타이의 보급<br>(2) 혼인의례와 우타이 |                                 |

キーワード：祝言能(Syugen-Noh), 謡(Utai), 小謡(Koutai), 「高砂」(「Takasago」), 寺子屋(Terakoya)

## I. 머리말

혼인의례를 비롯한 축하연이나 송별회, 추모식 등에서 ‘고우타이(小謡)’를 부르는 것은 일본사회의 오래된 전통이다. ‘우타이(謡)’는 노의 사장을 악기 반주 없이 단독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며, 우타이 중에서도 쉽게 부르기 위해 한 소절만을 따온 것을 고우타이라고 칭한다. 우타이는 귀족집안의 주연과 축하연 등에서 축복의 의미를 담아 부르는 노래였고, 동시에 무가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교양이기도 했다. 이는 곧 일반대중에게도 전파되어 서민들 사이에서는 오락문화의 하나가 되었으며, 에도(江戸) 중기 이후에는 고우타이가 연회에서 빠지지 않는 여흥의 하나로 대유행 하였다.

특히, 혼례에서 경사를 축하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고우타이를 부르는 관습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각지에 남아있다. 예부터 혼례에서 불리던 대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일본문화전공

표적인 고우타이는 노(能) 「다카사고(高砂) 사장의 한 소절인 「다카사고야(高砂や)」 라고 하는 곡이다. 예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앉는 단상을 ‘다카사고’ 라고 하며, 중매인을 ‘다카사고야’라고 칭하기도 했던 예만 보더라도 「다카사고야」라는 고우타이가 일본인의 생활문화와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는 혼례에서 고우타이 「다카사고야」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 곡은 최근까지 대중의 애창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우타이 「다카사고야」에 대한 연구로는 오모테 아키라(表章)의 「‘다카사고야’의 우타이에 대해서」<sup>1)</sup>라는 논고가 대표적이다. 오모테는 주로 혼인의례에서 「다카사고야」가 불리기 시작한 시기에 주안을 두면서, 그 내용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오모테의 「우타이 고」<sup>2)</sup>는 우타이 전반에 걸쳐 그 발달사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으므로 우타이 연구의 기본적인 참고문헌이라 할 수 있다. 가타기리 노보루(片桐登)는 에도 시대 노의 특징에 대하여 논하면서 고우타이의 발생과 민중에게 보급된 배경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고우타이를 편집한 ‘고우타이본(小謡本)’이 에도의 민간 교육기관이었던 테라코야(寺子屋)의 교재로 사용되면서 고우타이가 더욱 널리 유포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sup>3)</sup>. 또한, 슈겐우타이(祝言謡), 즉 우타이에 내포된 축하와 찬미의 특징에 대해서 면밀히 논하고 있는 오다 사치코(小田幸子)의 논문도 간과할 수 없다.<sup>4)</sup> 특히, 노의 본질과 고우타이 대중화 요인의 상관성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논고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고우타이 「다카사고야」의 성립과 수용양상, 나아가 그 문화사적 의의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무로마치 이후에 유행하던 다수의 고우타이 중에서도 특별히 「다카사고야」가 일본인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최근까지도 대중들 사이에서 애창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고우타이 「다카사고야」의 수용양상이라는 새로운 시점은 귀족문화로 인식되는 노 예술의 대중화에 관한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 表章(1979) 「‘高砂や’のうたいについて」 『能楽史新考(一)』 わんや書店, pp.304-307.

2) 表章(1979) 「うたい(謡)考」 『能楽史新考(一)』 わんや書店, pp.278-303.

3) 片桐登(1999) 「江戸の庶民生活と能」 『別冊太陽 能』 平凡社, pp.81-86.

4) 小田幸子(1983) 「世阿弥の祝言能」 『芸能史研究』 80, pp.25-38.

## II. 슈젠노(祝言能) 「다카사고(高砂)」의 성립

노는 「오키나사루가쿠(翁猿樂)」라고 하는 축복을 기원하는 주술예능에서 비롯되었으며, 노 연희집단은 이 곡에 등장하는 오키나(翁)라 불리는 신을 예능의 세계 뿐 아니라 천하를 관장하는 최고의 신으로서 숭배하였다. 이렇듯 노는 성립단계부터 직접적으로 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신에 의한 축복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의 세계에 다양한 신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의 작품 중에서 신을 주제로 하는 곡은 와키노(脇能)<sup>5)</sup> 또는 가미노(神能)라고 칭한다. 노를 대성시킨 제아미(世阿弥, 1363?-1443?)는 와키노의 요소로서 축하, 축복의 말이라는 의미의 ‘슈젠(祝言)’을 중요시 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노 이론서 『후시카덴(風姿花伝)』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와키노는 전거가 분명하고 정숙하여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세밀하지 않게, 음악적 요소와 동작연기도 전체적인 표현양식에 있어서 부드럽고, 평온하게 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슈젠’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와키노라고 해도 슈젠이 결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노가 약간 뒤떨어지더라도 슈젠이라면 염려 없을 것이다.<sup>6)</sup>

이와 같이 제아미는 와키노에 있어서 슈젠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슈젠, 특히 당대의 권력자와 세상에 대한 축복을 주제로 하고 있는 노를 ‘슈젠노(祝言能)’라 한다. 슈젠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오다 사치코의 「제아미의 슈젠노(世阿弥の祝言能)」에서는 제아미가 와키노의 제일 조건으로 신에 의한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나아가 이 축복의 노인 슈젠노가 제아미에 의해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오다는 대표적인 슈젠노인 「유미야와타(弓八幡)」 「요로(養老)」 「다카사고(高砂)」 「오이마쓰(老松)」 등의 분석을 통해 이

5) 에도시대에 노가 막부의 시키가쿠(式樂)로 자리매김하자, 노의 무대는 하루 5곡을 상연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 정식의 상연형식을 고평다테(五番立)라고 부르며, 노의 내용에 따라 5종류(신, 남, 녀, 광, 귀)로 분류하고 각각 1곡씩을 선택하여 순서대로 상연하였다. 이 중에서 첫 번째의 신을 주제로 한 노를 와키노라고 부른다.

6) “先、脇の申樂には、いかにも本説正しき事の、しとやかなるが、さのみに細かになく、御曲・はたらきも大かたの〔風体〕にて、するすると、安くすべし。第一、祝言なるべし。いかによき脇の申樂なりとも、祝言欠けてはかなふべからず。たとひ能は少し次なりとも、祝言ならば苦しかるまじ。” (『風姿家伝』第三問答條々). 본문 인용은 日本思想大系 『世阿弥禅竹』(岩波書店)에 의함.

들 곡들이 예외 없이 당대의 치세를 찬미하고 나라의 평화를 축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 정권의 정당성을 밝히는 주제를 가지며, 이는 제아미에 의해 명확하게 의도된 것이라고 하였다.<sup>7)</sup>

이러한 오다의 지적은 매우 적확하다고 할 수 있다. 제아미는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 1358-1408)의 총애를 받으면서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의 문화 광고탑, 또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가를 수호하는 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수의 노를 창작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과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로마치 막부의 문화면을 담당하는 공연예술로서 사루가쿠(猿樂: 노 이전의 명칭)가 클로즈업 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무로마치 막부의 권력을 축복하거나 노를 통해 무로마치 막부 자체를 세상에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제아미가 이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노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과정에서 제아미가 다양한 신을 주인공으로 한 노를 창작하고, 무로마치 막부체제를 축복하며 동시에 막부 권력의 정통성을 와키노, 특히 슈겐노에 의해 나타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아미가 ‘치세찬미’라는 주제를 담아 왕에 대한 찬미와 동시에 무로마치 막부체제에 대한 찬미를 노래했던 슈겐노의 대표적인 작품이 「다카사고」이다. 노 「다카사고」는 제아미의 작품으로 처음에는 「아이오이(相生)」<sup>8)</sup> 「아이오이마쓰(相生松)」라고도 불리었다. 『고킹와카슈(古今和歌集)』 서문의 “다카사고, 스미에의 소나무는 ‘아이오이’의 소나무와 같다(高砂、住の江の松も、相生の様に覚え)”라는 소절을 제재로 하여 창작되었으며, 와카(和歌)의 신으로 알려진 스미요신 신(住吉神)이 태평한 왕의 치세를 축복하는 후장(後場)도 또한 ‘가도(歌道)가 번창할 때는 국가가 평화로워진다’는 당시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다카사고」는 와카의 번영과 당대의 번영을 의미하는 ‘아이오이의 소나무’ 설화를 제재로 하여 치세를 찬미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노 「다카사고」에 관한 선행연구논문에서도 그 주제는 국가의 번영을 축복함과 동시에 무로마치 막부체제에 대한 치세찬미라는 공통인식을 제시하고 있다.<sup>9)</sup>

노 「다카사고」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큐슈(九州) 아소 신사(阿蘇神社)의 신관 토모나리(友成)가 다카사고 해변에서 만난 노부부로부터 하리마 국(播磨国)의 ‘다카사고 소나무’와 셋쓰 국(摂津国)의 ‘스미요시 소나무’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아

7) 小田幸子(1983) 「世阿弥の祝言能」 『芸能史研究』 80 pp.30-31.

8) 같은 뿌리에서 두 개의 줄기가 나와 자라난다고 하여, 부부가 함께 장생한다는 의미.

9) 天野文雄(2004) 「《高砂》の主題と成立の背景」 『演劇学論叢』 7 pp.14-51., 吉村均(1992) 「『高砂』のめでたさ—老い・歌・神—」 『季刊日本思想史』 39 pp.51-64.

이오이의 소나무’, 즉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들려준다는 내용이다. 이 노부부가 전설 속의 ‘아이오이’ 소나무의 정령이라는 설정이며, 노부부의 장수와 노송의 장생을 와카의 번영과 천하태평에 비유하며 축복하고 있다. 노부부가 ‘아이오이’ 소나무의 유래와 함께 와카의 덕과 소나무의 고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장(前場)은 정적이지만, 스미요시 신이 장쾌하게 가미마이(神舞)<sup>10)</sup>를 추는 후장은 동적이며, 무대가 다코사고로부터 스미요시로 바뀌는 등 장면의 변화가 큰 곡이다.

노 이론서 『사루가쿠단기(申樂談義)』에 의하면, 제아미는 슈겐노를 만드는데 있어서 모범이 되는 곡으로 「유미야와타」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곡이 칙사의 참배 시에 신이 나타나 태평성대를 축하했다고 하는 단순한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이어서 ‘「다카사고」는 역시 첨가된 것이 있다(相生もなし鱈が有也)’라고 비교하여 적었다.<sup>11)</sup> 일본어 원문 중의 ‘아이오이(相生)’는 앞서 언급했듯이 노 「다카사고」의 옛 명칭이다. 여기서 「유미야와타」를 슈겐노의 규범곡이라 말하며 동시에 「다카사고」의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작품성의 우열을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슈겐노 형식의 차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다 사치코의 논고에 따르면, 슈겐노는 구성상 “신의 국가수호를 주제로 막부정권의 치세를 축복”하는 노와 “제제로 취한 설화가 지니고 있는 슈겐의 요소를 빌어 치세를 축복”하는 노로 분류된다.<sup>12)</sup> 즉, 「유미야와타」는 전자의 예에, 「다카사고」는 후자의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제아미가 자신의 작품인 「다카사고」에 대해 스스로 내린 평가에 있어서 ‘첨가’라는 표현이 뜻하는 바는, 주인공인 ‘시테’가 상대역인 ‘와키’와 함께 ‘아이오이의 소나무’설화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유미야와타」에서 신이 직접적으로 권력자의 치세를 축복한다고 하는 단순한 구성과는 크게 다른 요소이기 때문이다. 요시무라 히토시(吉村均)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카사고」는 슈겐노로서는 내용의 전개가 복잡하지만, 이야기의 적절한 진행과 언어의 기교에 의해 슈겐의 구조를 작품화하였으며, 그 의미에서는 제아미 슈겐노의 정점에 위치하는 작품”<sup>13)</sup>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 남신(男神)이 빠른 속도로 장쾌하게 추는 춤.

11) “先、祝言の、かかり直成道より書き習ふべし。直成体は弓八幡也。曲もなく、真直成能也(中略) 相生も、なをし鱈が有也。”

12) 小田幸子(1983) 「世阿弥の祝言能」 『芸能史研究』 80 p.27.

13) 吉村均(1992) 「『高砂』のめでたさ—老い・歌・神—」 『季刊日本思想史』 39 p.62.

### Ⅲ. 노(能) 「다카사고(高砂)」의 우타이(謡)

#### (1) 우타이의 보급

중세 무가의 비호아래 성장한 노는 근세인 에도시기에 들어와 막부 전용의 시키가쿠(式樂)로 의식화되었다. 이후, 민중들이 노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금지되었으며, 권진 노(勸進能),<sup>14)</sup> 법악 노(法樂能),<sup>15)</sup> 마치이리 노(町入能)<sup>16)</sup>와 같은 몇 차례 되지 않는 비일상적인 이벤트를 통해 즐길 수 있을 뿐이었다. 각 유과의 노 배우들이 에도 막부에 고용된 이후에 연기교습은 물론 공연에 이르기까지 막부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막부에 의해 사치를 금지하는 포교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민중들 스스로가 전문가를 초청하여 노를 개최하기도 쉽지 않았고, 사실상 정식 노 무대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민중들이 오락으로서의 노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규의 노 무대가 아니고, 연기·연출도 간략한 형식이었지만 ‘쓰지노(辻能)’라 불리는 노 공연이 서민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쓰지노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 관중이 모이기 쉬운 큰길가나 신사·사찰의 경내에서 개최하던 노이다. 이시이 토모코(石井倫子)에 따르면 프리랜서인 연희집단이 거리예술로서 상연하여 호평을 얻었으며, 영락한 무사나 상인들 사이에서 예전에 연마했던 우타이나 노의 실력을 가지고 쓰지노 배우로 전환하거나 쓰지 우타이를 부르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 중에 오사카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호리이 센스케(堀井仙助)가 이끄는 좌는 본격적인 노를 싼 가격에 관람할 수 있게 하면서 평판을 얻어, 교토와 오사카 뿐 아니라, 지방으로까지 활동의 장을 넓혀 정식 노 배우들이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다는 일화가 있다.<sup>17)</sup>

쓰지노의 예를 통해 노가 무사 집단에 의해 독점되긴 하였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도 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서민들의 노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던 것은 역시 우타이의 보급이라 할 수 있다. 정식 노를 감상할 기회는 적었지만, 우타이만큼은 민중의 예술로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근세의 우타이 보

14) 신사나 사찰의 건설·수리비용을 모으기 위해 개최하는 노.

15) 신과 부처에게 봉납하는 노.

16) 에도 시대에 조정에서 선지를 내려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을 임명하는 의식이나, 관위 승진, 주군의 탄생, 혼례 등의 축하의례, 또는 중요한 법회 때 개최되는 노 상연 시에 관람을 허락하였다.

17) 石井倫子(2009) 『能狂言の基礎知識』角川選書 p.38.

급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강아미(觀阿弥, 1333-1384)·제아미 시절부터 연희 등의 자리에서 불리어 왔던 우타이는 무로마치 후기부터 성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노 배우들의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점차 비전문가들도 우타이를 즐겨 부르게 되었고, 특히 무로마치 후기에는 반직업적인 노 배우 ‘테사루가쿠(手猿樂)’의 활동에 의해 우타이가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에도의 인쇄기술발달과 출판의 성행에 따라 텍스트인 우타이 판본이 속속 간행되었으며, 이는 곧 도시는 물론 전국으로 퍼져 우타이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다.<sup>18)</sup> 우타이가 일반에게도 널리 보급되어 애창되자, 이 과정에서 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우타이는 처음에는 귀족 집안의 주연과 축하연 등에서 축복의 의미를 담아 불렀고, 우타이를 가창하는 것은 무가들의 필수 교양 중의 하나였다. 이는 곧 일반으로도 퍼져 나갔으며, 15세기 말에는 노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타이를 가르치는 일종의 ‘우타이 교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귀족, 무가, 일반서민 등 다양한 층이 우타이를 애창하였지만, 특히 도시의 지식인들과 부유한 상인층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가 있었다. 에도시대의 서민이 그룹을 조직하여 노의 우타이를 부르며 즐기었던 ‘우타이고(謡講)’가 이미 무로마치의 귀족들 사이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으며,<sup>19)</sup> 일반서민 사이에서 우타이가 유행했던 것은 테사루가쿠(手猿樂)의 대다수가 에도 서민이었다는 점만을 들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우타이 중에서도 노의 사장의 한 소절만을 부르는 고우타이 곡이 현대의 가요곡처럼 서민에게 보급되었으며, 에도 서민들의 교육시설인 테라코야(寺子屋)에서는 교과과정에 편성될 정도였다.<sup>20)</sup>

이러한 우타이의 확산은 근현대로까지 이어져, 회갑연, 주택의 신축, 결혼축하연 등 생활과 밀착된 사적인 자리에서 각각의 연희에 맞는 우타이를 부르며 흥을 돋우는 풍습을 남기었다. 최근 들어 감소했지만, 혼례의 피로연에서 「다카사고」의 우타이가 가창되었던 것도 바로 무로마치 후기부터 본격화 된 우타이 보급과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혼인의례와 우타이

연회에서 축하의 의미를 담아 우타이를 노래한 것은 노 성립 당시부터이다. 제아미

18) 表章(1979) 「うたい(謡)考」 『能楽史新考(一)』 (わんや書店pp.296~297). 片桐登(1999) 「江戸の庶民生活と能」 (『別冊太陽 能』 平凡社 p.82) 등 참조.

19) 片桐登(1999) 「江戸の庶民生活と能」 『別冊太陽 能』 平凡社 p.81.

20) 表章外(1992) 岩波講座能・狂言 『能楽の歴史』 岩波出版 p.155.

시대에는 각 계절에 맞는 ‘슈겐 우타이’를 모아 편집한 『시키슈겐(四季祝言)』<sup>21)</sup>이라는 우타이 곡집이 발행되었고, 노 배우에게 있어서의 우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우타이의 유행과 더불어 용도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다카사고」는 부부의 화합을 축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래전부터 혼례의 장에서 불려왔다. 혼례의 장에서 「다카사고」 우타이를 부르는 풍습이 시작된 것은 무로마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로마치 말기에 편집된 『하치조카덴쇼(八帖花伝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사위를 맞고 아내를 맞는 우타이는 제일 중요한 ‘슈겐’이다. 「다카사고」의 우타이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아이오이(相生)라고 하는 의미이다.<sup>22)</sup>

즉, 혼례에서 슈겐우타이로서 가장 중요한 「다카사고」 우타이가 이미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풍습이 근세·근대를 거쳐 최근까지 이어져 왔고, 혼인의례에서 「다카사고」 우타이를 부르는 풍습은 오랜 역사를 통해 대중의 생활과 밀착된 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속학 연구의 대가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가 기록한 근대시기의 혼례에 관한 설명 중에도 혼인 당일 오전 중에 처가 행이 이루어지고, 이때 ‘고슈기(御祝儀 ; 축하의식·혼례)’라고 칭하며 「다카사고」의 우타이를 부른다는 내용이 있다.<sup>23)</sup> 이 기록은 이와테 현(岩手県)에 속한 몇 곳의 산촌마을을 조사한 예로써 「다카사고」의 우타이가 혼례에 있어 상용되는 관습이 각 지역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31년에 기록된 「혼례의식 착석순서도(式着席順序図)」<sup>24)</sup>에는 ‘요쿄쿠(謡曲)’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어, 신랑 신부가 술잔을 나눌 때 우타이를 맡은 사람들의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노 「다카사고」의 우타이 중에서도 일본인들에게 특히 친숙한 곡이 「다카사고야」이다. 최근까지도 혼례나 축하연에서 자주 불리던 곡이기 때문이다. 혼례에서 불리는 고우타이 「다카사고야」를 노의 사장을 빌어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1) 오치아이 히로시(落合博志)의 「『四季祝言』考」(『能楽研究』12)를 참조하면, 『四季祝言』은 장군가에 거의 소속된 것이나 다른없는 노 배우로서의 지위를 반영하고, 귀인(특히, 장군가)을 의식하여 만들어진 슈겐 우타이 곡집이며, 그 운용의 실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힐 수 없지만, 적어도 장군가를 비롯한 귀인 앞에서의 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22) “婿取・嫁取の謡は、第一祝言なり。『高砂』の謡を本とせり。是、相生と言ふ義なり”(『八帖花伝書』三卷、日本思想大系『古代中世芸術論』所収)。

23) 柳田国男(1979)「婚姻の話」『柳田国男集』(第一五卷)筑摩書房 p.166.

24) 가메야마시 역사박물관(亀山市歴史博物館) 2013년(제21회) 전시 『(변해가는 결혼풍경(変わりゆく嫁入り風景))』 자료집.

高砂や この浦舟に帆を上げて この浦舟に帆を上げて 月もろともいでしほの 波のあはぢの  
島影や 遠くなるをの沖過ぎて はや住吉に着きにけり はや住吉に着きにけり<sup>25)</sup>

위의 우타이를 우리말로 의역하면, ‘다카사고 해변에 정박해 있는 배의 돛을 올리고 월출과 함께 밀물에 배를 띄어 나가면, 아와지 섬의 파도도 저편으로 멀어진다. 저 멀리 나루오 해변을 지나 벌써 스미요시의 해변에 닿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다. 일본인들은 ‘다카사고야’의 한 단어로 바로 결혼식을 연상하고, 결혼중개업자를 ‘다카사고야(高砂屋)’라고 칭하기도 할 정도로 혼례와 「다카사고」의 우타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26)</sup> 하지만, 무로마치 시대에 혼례에서 환영받았던 슈젠우타이가 노 「다카사고」의 우타이, 혹은 고우타이라고 해도 위에서 들었던 것처럼 최근의 혼례의 장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고우타이 「다카사고야」 곡이었을지, 또는 노 「다카사고」의 다른 부분<sup>27)</sup>을 불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우타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종 이러한 지적이 있어왔지만, 대표적으로 오모테 아키라의 우타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다카사고야’는 겐로쿠(元禄) 이후 처음으로 보이므로 채용하고 있지 않은 책이 더 많다. 채용하고 있는 책이라도 특히 ‘다카사고야’를 혼례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 (중략) 에도 시대에는 혼례에 「다카사고」가 반드시 따라다녔다고는 해도 ‘다카사고야’가 반드시 불렀다고는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카사고야’의 고우타이가 이것저것 불리고 있었던 것이 점점 ‘다카사고야’만으로 「다카사고」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이고, 그 시기는 막말부터 명치 중엽에 걸친 시기가 아닐까.<sup>28)</sup>

25) 新潮日本古典集成『謡曲集』(中)所収「高砂」. 참고로 결혼식에서는 첫 구절의 ‘この浦舟に帆を上げて’를 반복하지 않으며 ‘いでしほ(出汐)’는 ‘いりしお(入汐)’로, ‘島影’는 ‘明石瀾’로, ‘遠く鳴尾の沖過ぎて’ 부분은 ‘近き鳴尾の沖行きて’로 바꾸어 부르는 경우도 있다. 경사스러운 결혼식에 어울리는 어구로 부분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

26) 表章(1979) 「高砂や」のうたいについて『能楽史新考(一)』わんや書店 p.304

27) 노 「다카사고」가 대표적인 축하 곡이었던 만큼 이 노의 우타이 중에는 「다카사고야」 이외에도 축복의 의미를 담아 불려 왔던 우타이가 3곡 더 있다. “四海波しずかにて(後略)”, “高砂の尾上の鐘の(後略)”, “高砂やこの浦舟に(後略)”, “千秋楽は民を撫で(後略)” 이 중에서도 지우타이의 한 소절인 「시가이나미(四海波)」 역시 특별히 축하의 의미를 담은 부분으로서 중요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식 등에서 불리는 ‘高砂やこの浦舟に帆をあげて’라는 우타이 부분이 유명하지만, 노 배우들이 결혼식이나 신년회 등의 축하연에서 반드시 부르는 우타이는 오히려 「시가이나미」인 경우가 많다.

28) “「高砂や」は元禄以後はじめて姿を見せ、採用していない本の方が多い。採用している本でも、特に「高砂や」を婚礼用とはしていない。(中略)江戸時代には婚礼に「高砂」がつきものであったとは言えても、「高砂や」がつきものであったとは言い得ないようである。「高砂」の小謡があれこれ謡われていたのが、だんだん「高砂や」だけで「高砂」全体を体表するようになったもので、その時期

이상의 오모테의 논고의 대략은 온당한 지적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도 결혼식에서 불리는 고우타이는 「다카사고야」 한 곡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혼례 시에 부르는 우타이의 관습을 조사한 동북지방의 사례연구에서도, 「다카사고야」 외에도 다양한 우타이가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키야마 게이코(奥山けい子)는 민속학연구의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촌락사회에 있어서의 고우타이를 재정리하고 있는데, 이 논문 중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다카사고야」 뿐 아니라 「시카이나미(四海波)」, 그리고 노다카사고 곡의 [론기(ロンギ: 노 소단 중의 하나. 문답형식의 우타이)] 부분까지 가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또한, 최근 발매된 일본전통문화진흥재단의 「슈겐 고우타이집(祝言小謡集)」<sup>30)</sup>에 수록된 총 29곡 중에서도 혼례용으로 쓰이는 우타이로서 노「다카사고」에 포함된 4곡의 고우타이 이외에도, 오이마쓰(老松)·고테이(皇帝)·이즈쓰(井筒)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혼례의 장에서는 노 「다카사고」의 우타이가 중심이 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혼인의례에서 노의 우타이가 애창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노 「다카사고」가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곡이 갖는 축복과 찬미라는 특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 「다카사고」의 우타이는 축하하는 마음인 ‘슈겐’ 우타이로 널리 확산되어 왔으며, 이 우타이의 유행과 함께 축복과 부부화합이라는 노의 주제는 혼례의 장에 적합한 축하메시지로 자리매김하여 일본만의 독특한 풍습을 형성해 온 것이다.

#### IV. 고우타이(小謡) 「다카사고야(高砂や)」의 수용양상

노가 무가의 공식 가무인 시키가쿠가 된 후, 교습용 우타이 텍스트는 무가들의 교양의 원천으로서 인기가 높아졌다. 여기에 인쇄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타이 텍스트의 출

は幕末から明治中頃にかけての時期ではなかろうか。”表章「高砂や」のうたいについて『音楽史新考(一)』(わんや書店、1979年、pp.304~306)

29) 해당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후쿠시마 현(信夫郡·伊達郡)의 중산층의 혼례의 예로서 처음에 신부의 준비가 진행되는 집에서 증매자가 다카사고를 불렀고, 술을 받은 손님들이 ‘시카이나미(四海波)’를 제창하였다. 신부가 집을 나서자 일동은 노 「다카사고」의 ‘론기’ 부분을 다 부르고 나서 일어서서 나갔다. 신부와 신랑이 나카야도(中宿:혼례 때, 신부가 시가에 들기 전에 들어가서 쉬는 집)에서 만나 신부 측이 손님들이 ‘다카사고’를 부르며, 신랑 측에서는 ‘시카이나미’를 부른다. 신랑신부가 신부 집 출입구에 도착하면, 손님들은 ‘다카사고야’를 부르며, 노래가 끝날 때쯤 마당에 도착한다. 일동이 집에 들어가 술잔을 받은 뒤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노 「다마이(玉井)」의 고우타이를 부르고 삼삼구도의 의식이 끝난다(奥山けい子「村落社会における小謡と能一東北地方の事例から」『お茶の水音楽論集』2006-12, p.318)

30) 간제 류(観世流)의 요료쿠(謡曲) 명곡집

판이 증가하자 우타이는 에도의 서민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우타이가 그들의 교양의 베이스가 되었다. 특히, 에도 시대 서민의 교육시설이었던 테라코야(寺子屋)에서 교육용으로 고우타이를 채용하여 가르치게 되자, 고우타이를 통해 읽기·쓰기와 같은 실용교육은 물론 역사와 고전문학 등의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고우타이는 더욱 폭넓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에도시대 서민들의 교양교육의 기반으로 노의 우타이가 채용되고, 이를 통해 일본의 고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노의 대중화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한 편의 우키요에(浮世絵)가 담아내고 있는데, 바로 우타마로(歌麿)의 「테라코야고우타이 판화(寺子屋小謡図版画)」<sup>31)</sup>이다. 이 판화에는 테라코야에서 「다카사고야」를 목청껏 부르고 있는 남자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테라코야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던 것은 에도 말기이므로 우타이 교육 또한 에도말기에 더욱 집중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우타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다음의 메이지 시대까지도 이어졌다.

한편, 대표적인 대중예술문화인 라쿠고(落語)에도 혼례에서 고우타이 「다카사고야」를 부르는 풍습을 중심소재로 한 작품이 있다. 바로 고우타이와 동명의 라쿠고 「다카사고야」라고 하는 곡이다. 이 곡은 쇼쿠닌(職人) 하치고로가 처음으로 결혼 중매인 격인 나코우도(仲人)를 부탁받고, 지인에게 상담을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치고로는 혼례 참석 시에 입을 의상을 빌리고, 또 축하로서 우타이를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하치씨, 그럼 네가 나코우도를 부탁받았다는 거야?. 아, 하카마(袴)·하오리(羽織) 정도는 빌려주지요. 그렇지만, 식이 끝나기 전에는 축하용 우타이를 불러야 하는데(중략) ‘다카사고야’라고 하는 우타이다.<sup>32)</sup>

위와 같은 조언을 듣고는 「다카사고야」 우타이를 알지 못하는 하치고로는 첫 구절만 외워 가면 그 다음은 식장에 있는 하객들이 함께 불러 주리라 생각하고 갔다. 하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 찢찢매게 되는 우스운 이야기이다.

라쿠고 「다카사고야」는 결혼식에서는 필수인 고우타이 「다카사고야」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31) 法政大学能楽研究所

32) “八さんや、それじゃお前が仲人を頼まれたというのかい。ああ袴羽織ぐらいは貸してあげます。けれどもお開きの前には、ちょっとご祝儀をやらなければならぬ(中略)高砂というのは謡だ”(今村信雄編『古典落語全集(上)』「高砂や」)

대화중에 “처음만 조금 외워 두면 되는 거야(頭だけちょっと覚えていけばいいんだよ)”라는 부분과 결혼식장에서 하치고로가 첫 구절을 부르고 난 후에 “이 다음은 친척들이 이어서 불러주실 테니까(お先はその親戚の方がつけてくださるんで)”라고 하는 부분 역시 대다수가 고우타이 「다카사고야」를 부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처럼 에도 시대 전반에 걸쳐 고우타이 「다카사고야」는 종종 대중이 즐기던 예술 문화의 중심소재로 등장하였다. 에도의 시문학 장르에서도 고우타이 「다카사고야」를 비롯하여 노 「다카사고」의 영향을 받은 하이카이(俳諧)를 찾을 수 있다. 오카타 마오(桜片真王)가 「기토에 의한 노의 구(几董の能の句)」<sup>33)</sup>라는 논문에서, 노가 하이카이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하는 가운데 소개한 다카이 기토의 하이카이는 총 네 개의 구<sup>34)</sup>이다. 이 하이카이 네 구는 혼례에서 「다카사고」의 우타이가 불리는 관습에 대해 읊고 있으며, 동시에 이 구 자체에도 노 「다카사고」본질인 경사스러운 혼례를 축하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가타기리 노보루는 “가도(歌道)에 있어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가 숭상되었듯이 하이카이 장르에서는 노의 우타이가 그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의 문학에서도 우타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5)</sup> 이렇듯 에도 문학이 노의 우타이와 밀접한 관련 하에 전개되고 있는 조류 속에서 「다카사고」의 우타이를 소재로 하이카이를 읊은 에도 중기의 시인 다카이 기토(高井几董)와 같은 가인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고우타이에 국한된 예는 아니지만, 노 「다카사고」를 중심소재로 다루고 있는 소설을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작품 중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우타이 「다카사고야」가 생활문화와 밀착되어 있었던 만큼 노 「다카사고」 또한 대중에게 친숙한 작품이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를 근대문학의 거장 나쓰메 소세키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가 노의 우타이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의 우타이 실력은 그다지 좋지 않아 “몇 번이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모두가 포복절도하는 가운데에서도 혼자 성실하게 불렀던 것이 사실 이었다”<sup>36)</sup>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쓰메 소세키의 우타이에 대한 열정은 창작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풀베개(쿠사마쿠라, 草枕)』라는 소설은 노와의 직접적

33) 桜片真王(2000)「几董の能の句」『上智大学文学論集』33 pp104-105.

34) “えいやっと高砂やなる婿の汗, 高砂やこの裏貸屋諸白髪, 高砂に冬の扉をひらきけり, 久しかれ声高砂の松の冬”

35) 片桐登(1999)「江戸の庶民生活と能」『別冊太陽 能』平凡社 p.83.

36) “何度もみんなの笑いものになりながら、みんなが笑い転げる中でひとりだけ真面目に謡っているのが実際のところだったんです”(馬場あき子・日置俊次・西野春雄「漱石と能—新作能〈草枕〉をめぐる」『能楽研究』30, 2005년, p.123)

인 관련이 지적되고 있는 작품이다. 마스다 쇼조(増田正造)의 설명에 따르면 『풀베개』는 노의 구조와 노 배우의 연기에 비유하여 창작한 작품으로, 세부적인 묘사 중에서 그의 착각이라 여겨지고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23년 전에 호쇼(宝生) 무대에서 노 「다카사고」를 관람했을 때의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sup>37)</sup> 노의 구조를 이용하여 소설을 쓴 것은 나쓰메 소세키가 처음으로 시도한 작업이었으며, 그의 노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특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나쓰메 소세키는 스스로 우타이의 교습을 통해 노에 심취해 갔고, 그의 작품 속에 노의 구조를 의식적으로 반영하였다. 나쓰메 소세키가 우타이 교습을 통해 노에 심취한 것은, 에도 시대의 민중들이 우타이의 애창과 더불어 노에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과 매우 닮아있다. 특히, 나쓰메 소세키가 자신의 소설에 노 「다카사고」의 관람기를 기술할 만큼, 「다카사고」가 일본의 근대시기에도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대중이 노 「다카사고」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는 배경으로 고우타이 「다카사고야」를 비롯하여 다카사고의 우타이가 혼인의례와 같은 생활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노는 강아미·제아미라는 천재성을 지닌 두 부자에 의해서 완성된 후, 처음에는 무가의 주연에서 빠지지 않는 여흥에 불과했다. 비록 하층민에 의한 가무라는 의식이 남아있기는 하였지만, 아시카가 요시미쓰를 비롯한 막부의 권력자들이 노를 즐기며 저마다 노 연기자를 후원하기 시작한 이래, 점차 무사의 소양으로서 인식되는 풍조가 생겨났으며, 막부의 공식적인 가무로서의 위치를 확립하여 갔다. 특히, 노는 에도 시대에 들어와 막부의 공식적인 가무인 ‘시키가쿠’라고 불리며 각 번(藩)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안온한 환경 하에서 예술세계를 유지시켜 왔다.

이렇듯 노는 무가(武家) 중심의 귀족 계층이 향유하던 예술문화였지만, 서민들이 갖는 관심도 컸다. 특히, 노의 성악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노래하는 우타이는 일반에게도 널리 보급되어 애창되어 왔다. 우타이는 처음에는 귀족 집안의 주연과 축하연 등에서 축복의 의미를 담아 불렀고, 우타이를 가창하는 것은 무가들의 필수 교양 중의 하나였다. 이는 곧 일반대중에게도 퍼져나갔으며, 서민들 사이에서는 오락문화의 하나가

37) 増田正造 『能と近代文学』 平凡社, 1990년, p.236-238.

되었다. 대표적인 노 유파에 속한 전문가들의 노 무대가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향수되어 온 반면, 우타이만큼은 민중의 예술로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 우타이의 유행과 더불어 도시민의 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고, 이러한 노와 우타이의 확산은 대중의 생활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타이의 짧은 한 소절인 고우타이는 서민의 교육시설인 테라코야의 교육용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일본 전역을 통해 우타이가 유행하였고, 축하연이나 혼례에서는 경사스러운 자리를 축하하는 의미의 슈겐 우타이를 부르는 풍습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다카사고야」와 같은 고우타이는 최근까지도 결혼식에서 환영받는 곡이 되었다.

고우타이 「다카사고야」는 노 「다카사고」에 포함된 짧은 노랫말로 최근까지도 일본인이면 누구나가 들어본 적이 있을 만큼 축하연에서는 빠지지 않는 대중의 애창곡이었다. 하지만, 고우타이 「다카사고야」의 표면적인 내용은 축복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결혼식에 적합하지 않은 ‘그림자(影)’와 ‘멀어지다(遠クナル)’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카사고라는 단어만으로도 혼례라는 경사스러운 연회를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우타이 「다카사고야」의 전거인 노 「다카사고」는 제아미의 작품으로 와카의 신인 스미요시 신이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내용의 대표적인 슈겐노이다., 바로 이 슈겐노에 포함된 축복과 찬미라는 주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스미요시와 다카사고의 ‘아이오이’ 소나무 전설에 얽힌 부부가 함께 장수하며 화합한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로마치 이후, 고우타이 「다카사고야」는 대중의 문예 속에 종종 중심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우타마로의 「테라코야고우타이 판화」, 라쿠고 「다카사고야」, 다카이 기토의 하이카이 작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혼례 시의 예단으로 노부부를 형상화 한 다카사고의 인형을 넣는 관습도 행복하게 나이를 먹는 이상적인 부부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 또한 노 「다카사고」와 이 곡에서 파생된 우타이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노 「다카사고」는 물론 고우타이 「다카사고야」가 대중의 애창곡으로써 현대로까지 그 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혼례의 장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인의 생활문화와 밀착해 있었으며, 우키요에, 라쿠고, 하이카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예장르 속에서 중심소재로 다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대중의 관심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다수의 노 연구자들은 근대 이후 시키가쿠로서의 위상을 잃은 노는 커다란 타격을 받았지만, 우타이 애호가들에 의해 부흥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노 문화로부터 멀어진 현대인들의 경우도 이와 같이 우타이를 배우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나쓰메 소세키의 예에서 보듯이 근대에는 우타이 중심의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현대는 우타이와 시마이(仕舞)의 교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근세와 근대 시기에 있어 시마이는 무가나 유복한 상공인을 제외하고는 전문가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반면, 현대에 있어서는 우타이에 이어 시마이도 대중화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天野文雄(2012) 「なぜ『高砂』を「老体」で上演するのか」 『国立能楽堂』 345, pp.16-20.  
天野文雄(2004) 「《高砂》の主題と成立の背景-応永29年の阿蘇大宮司雑掌の上洛と義持の治世をめぐって」 『演劇学論叢』 7 pp.14-51.  
榎片真王(2000) 「几童の能の句」 『上智大学文学論集』 33 pp.104-105.  
奥山けい子(2006) 「村落社会における小謡と能-東北地方の事例から」 『お茶の水音楽論集』 (特別号) p.318.  
小田幸子(1983) 「世阿弥の祝言能」 『芸能史研究』 80 pp.25-38.  
落合博志(1987) 「『四季祝言』考」 『能楽研究』 12 p.78-80.  
表章(1979) 「うたい(謡)考」 『能楽史新考(一)』 わんや書店 pp.296~297.  
表章(1979) 「高砂や」のうたいについて 『能楽史新考(一)』 わんや書店, p.304.  
片桐登(1999) 「江戸の庶民生活と能」 『別冊太陽 能』 平凡社 p.82  
佐々木孝浩(2004) 「歌神としての住吉明神」 『鍊仙』 234 pp.4-5.  
高橋好美(1987) 「祝言能の周辺」 『日本文学論叢』 16 pp. 52-62.  
富山泰雄(1994) 「語り」の構造-弓八幡と高砂の祝言(1) 『橘香』 39-4, p.2.  
中村健史 「二三年前宝生の舞台で」 『京都大学国文学論集』 16, p12.  
西野春雄外(2005) 「漱石と能-新作能〈草枕〉をめぐって」 『能楽研究』 30 p.123.  
増田正造(1990) 『能と近代文学』 平凡社 pp.236-238.  
柳田国男(1979) 「婚姻の話」 『柳田国男集』 (第一五卷) 筑摩書房 p.166.  
吉村均(1992) 「『高砂』のめでたさ-老い・歌・神-」 『季刊日本思想史』 39, pp.51-64

논문 투고 일자 : 2016. 1. 4
논문 심사 일자 : 2016. 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6. 2. 4

---

 < 要旨 >
 

---

## 小謡「高砂や」をめぐって

金賢旭

結婚式をはじめ、お祝いの場や送別会などで小謡が謡われるのは、古くから伝わる日本社会の伝統である。謡いは、貴族たちの酒宴とお祝いの場で祝福の意味を込めて謡われ、同時に武士なら備えるべき必須教養であった。これは、一般大衆にも拡散されて娯楽文化の一つとなり、江戸中期以降は、小謡が宴会には欠かせない余興となった。結婚式でお祝いと幸福を祈るために小謡を謡う風習は、現代にいたるまで日本の各地に残っている。古くから結婚式で謡われた小謡は、能「高砂」の謡、特に、「高砂や」という曲である。小謡のなかでも「高砂や」という小謡が大衆に愛され、お祝いの場で用いられてきた背景は何だろうか。その答えは、祝言能の祝福と賛美という主題と関係があるであろう。小謡「高砂や」の典拠である能「高砂」は、世阿弥の書いた作品で、和歌の神である住吉明神が国家泰平を祈願する、代表的な祝言能である。特に、住吉と高砂の相生の松と関わる、長寿と夫婦和合のイメージが影響しているのである。さらに、能「高砂」はもちろん、小謡「高砂や」が現代日本の大衆からも変ることなく愛され謡われ続けてきた理由として、浮世絵、落語、俳諧などの多様な文芸ジャンルのなかで、中心素材として用いられ、持続的に大衆に親しまれてきたということも看過できない。

## Research of 「Takasagoya(高砂や)」

Kim, Hyeon-Wook

With a perspective view of Noh's popularization, Noh 'Takasago' and 'Utai' were centrally researched in this paper based on how after the Muromachi(室町) era to the modern period accepted Noh. 'Takasago' is a one of the Noh pieces that have popularized throughout the Muromachi era to today. Noh has standpoint which known as an art only opened to a specific classes such as warriors. However, Noh has continued as the public entertainment, and especially 'Utai' was spread out to a mass culture. 'Utai' was first considered as basic knowledge among warriors, sooner or later it began to spread out to the public. Also, 'Goutai' was selected for an educational use at 'Terakoya' where they educated people. 'Utai' became popular in the entire region, and at parties or weddings participants commenced to sing a song 'Suegen Utai' which includes the meaning of the celebration. Even today, the Goutai 'Takasagoya' is a popular song at weddings. However, the Goutai 'Takasagoya' does not include any meaning of blessing in the song. Moreover, the song contained words such as 'Shadow(影)' and 'Drift Apart(遠クナル)'. Instead, a Goutai 'Shigainami' included meaning of blessing and preferred to be use in any celebrational parties. Notwithstanding the meaning, why does 'Takasago' indicates weddings? The answer may found in the topic of Noh 'Takasago'. Mainly, Sumiyoshi and Takasago's 'Aioi(相生)' pine story, an image of a marriage couple who lived long and concorded together may reflected. After Muromachi, Noh 'Takasago' was found in a mass culture as the main subject. 'Takasago' has been a subject in 'Utekoyagoutai engraving(寺子屋小謡図版画)' by Utamaro(歌麿), Rakugo 'Takasagoya(高砂や)', Haikai(俳諧) by Dakai Kito(高井几童), and novels from Natsume Soseki(夏目漱石). Based on diffusion and fame of 'Utai', acceptance of Noh 'Takasago' in mass culture appeared.